

양산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관한 조사연구(II)

신애숙* · 김영숙** · 홍정훈***

양산대학 호텔조리과*, 양산대학 식품가공과**, 도쿄호텔***

(1999년 6월 11일 접수)

A Study of Drinking Behaviors Among Students at Yangsan College

Ae Sook Shin*, Young Sook Kim**, and Jeong Hoon Hong***

Dept. of Hotel Culinary Arts, Yangsan College*

Dept. of Food Science & Technology, Yangsan College **, Cook of Hotel Tokyo***

(Received June 11, 1999)

Abstract

To investigate the drinking pattern and behaviors of Yangsan College students, a self-administrated survey was conducted to the subjects, composed of male 336 and female 16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With regards to kind of alcoholic beverage, 71.6% of subjects responds have a preference for soju, which is favored more by male than by female.
- The most favorite side dishes are stew and soup(48.2%), then roasted meats and fruits.
- In the drinking habit, 40.4% of subjects responded that they drink themselves to sleep, 20.6% have more chatter, and 12.5% become silent.
- 80% of the subjects, some of which recognized overdrinking, responded that the culture to have a drinking after official events is essential, while 6.6% responded that it goes wrong.

I. 서 론

음주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등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거주자를 인구비율로 하여 1997년에 실시한 한국 성인의 음주 실태²⁾를 살펴보면, 맥주 1잔과 소주 1잔을 동일한 양으로 계산하여 한국 성인은 평균 5.3잔 정도를 마시며 한번에 10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5.5%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성인들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음(heavy drinking)의 경우 한국성인의 19.1%가 폭음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미국(6.0%)에 비해 폭음률이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한국성인의 32%, 즉 10명 중 3명이 문제 성 음주자로 지난 1년간 음주와 관련된 개인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³⁾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 협회가 설립되고 여러 프로그램과 치료센터가 설립되고 있으나 전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계층별 음주형태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부 치료센터와 연결하여 실질적으로 음주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주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양산대학 학생들의 음주습관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II. 조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양산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평소 음주행동 및 의식 등 음주문화 전반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설문지를 작성하여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1998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기준의 문헌^{7,9)}들을 참고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의 음주 시 선호하는 술종류와 안주종류, 술집을 선택하는 기준, 술이 취한 후의 술버릇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양산대학내 각과별 고른 분포를 위하여 과별로 약 30부정도 배부하였으나, 총 7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620부를 입수하여 그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597부를 통계처리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pc⁺⁴⁾⁵⁾를 이용하였고, 백분율과 χ^2 검증을 통해 성별, 연령별, 월평균 용돈별, 한달 술값 지출 비용별로 각 문항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조사연구(I)²¹⁾와 동일하다.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66.7%가 남학생, 33.3%가 여학생이며, 연령별로는 만 20세 미만이 55.1%, 만 20~24세가 35.9%를 차지하였다. 주거 상태별로는 자기집에서 다니는 학생이 85.7%로 가장 많았고, 자취생이 7.6%였으며, 월 평균 용돈은 16~30만원의 학생이 57.1%이고, 15만원이하가 22.4%를 차지하였다. 한달 술값 지출비용은 5만원 미만이 43.1%로 가장 많았다.

2. 대학생들이 음주 시 선호하는 술종류

〈표 2〉에서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음주시 선호하는 술은 소주가 71.6%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항 목	내 용	남	여	계
연령 (만세)	20미만	185(46.7)	142(71.7)	327(55.1)
	20~24	169(42.7)	44(22.2)	213(35.9)
	25~29	38(9.6)	9(4.6)	47(7.9)
	35이상	4(1.0)	3(1.5)	7(1.2)
	전 체	396(100)	198(100)	594(100)
주거 상태	자기집	342(87.9)	167(84.4)	509(85.7)
	친척집	10(2.5)	7(3.5)	17(2.9)
	하숙집	8(2.1)	2(1.0)	10(1.7)
	자취방	28(7.2)	17(8.6)	45(7.6)
	기 타	1(0.3)	5(2.5)	6(1.0)
월 평균 용돈 (만원)	전 체	389(100)	198(100)	587(100)
	5~10	33(8.5)	17(8.6)	50(8.5)
	11~15	51(13.0)	31(15.7)	82(13.9)
	16~20	76(19.4)	29(14.7)	105(17.9)
	21~25	69(17.6)	40(20.3)	109(18.6)
기 타 (무응답포함)	26~30	72(18.4)	49(24.9)	121(20.6)
	31 이상	65(16.6)	24(12.2)	89(15.1)
	전 체	25(6.4)	7(3.6)	32(5.4)
한달 술값 지출 비용 (만원)	전 체	391(100)	197(100)	588(100)
	5미만	126(34.4)	103(62.3)	229(43.1)
	5~10	111(30.3)	44(26.7)	155(29.2)
	11~15	71(19.4)	12(7.3)	83(15.6)
	16~20	32(8.7)	4(2.4)	36(6.8)
비용 (만원)	21~25	10(2.7)	0	10(1.9)
	26이상	16(4.4)	2(1.2)	18(3.4)
전 체	366(100)	165(100)	531(100)	

맥주(12.5%), 생맥주(9.5%) 순으로 나타났다. 신⁷⁾등의 연구에서는 음주시 선택하는 술 종류로는 맥주가 60.4%로 가장 많은 비도를 보였으며, 소주를 선택한 학생은 36.5%로서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국 대학생 알코올 문제 예방협회'⁸⁾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맥주(70%)와 소주(36%)이며 해비드링커는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p<0.001$), 월 평균용돈별 ($p<0.01$)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음주시 선호하는 술종류로는 소주를 선호하는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으며, 맥주나 생맥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전 학생들이 소주를 선호하였으며 용돈이 많은 학생들이 맥주나 양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 음주 시 선호하는 술종류

N(%)

항 목	맥 주	생맥주	소 주	과일주	양 주	막걸리	폭탄주 및 기타	전 체	비 고
성 별	남	35(9.5)	23(6.3)	282(76.6)	2(0.5)	6(1.6)	3(0.8)	17(4.6)	368(100)
	여	32(19.0)	28(16.7)	102(60.7)	1(0.6)	2(1.2)	0	3(1.8)	168(100)
	계	67(12.5)	51(9.5)	384(71.6)	3(0.6)	8(1.5)	3(0.6)	20(3.7)	536(100)
평균 용돈 (만원)	5~10	7(16.3)	3(7.0)	29(67.4)	0	0	0	4(9.3)	43(100)
	11~15	7(9.6)	10(13.7)	52(71.2)	0	0	1(1.4)	3(4.1)	73(100)
	16~20	11(12.0)	13(14.1)	64(69.6)	0	1(1.1)	0	3(3.3)	92(100)
	21~25	11(11.0)	8(8.0)	74(74.0)	1(1.0)	0	1(1.0)	5(5.0)	100(100)
	26~30	14(12.6)	11(9.9)	83(74.8)	0	1(0.9)	0	2(1.8)	111(100)
	31이상	15(18.3)	5(6.1)	56(68.3)	1(1.2)	2(2.4)	1(1.2)	2(2.4)	82(100)
	기 타	1(3.3)	1(3.3)	23(76.7)	0	4(13.3)	0	1(3.3)	30(100)
계		66(12.4)	51(9.6)	381(71.8)	2(0.4)	8(1.5)	3(0.6)	20(3.8)	531(100)

〈표 3〉 학생들이 선호하는 안주류

N(%)

항 목	찌개, 탕류	무침 볶음류	육류 (구이)	과일 안주	마른 안주	튀김, 전류	안주 없이	기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	173(46.9)	27(7.3)	75(20.3)	27(7.3)	8(2.2)	21(5.7)	3(0.8)	35(9.5)	369(100)
	여	86(51.2)	12(7.1)	23(13.7)	19(11.3)	8(4.8)	13(7.7)	1(0.6)	6(3.6)	168(100)
	계	259(48.2)	39(7.3)	98(18.2)	46(8.6)	16(3.0)	34(6.3)	4(0.7)	41(7.6)	537(100)
평균 용돈 (만원)	5~10	17(39.5)	4(9.3)	8(18.6)	4(9.3)	2(4.7)	3(7.0)	0	5(11.6)	43(100)
	11~15	42(57.5)	5(6.8)	10(13.7)	7(9.6)	2(2.7)	3(4.1)	0	4(5.5)	73(100)
	16~20	48(51.6)	9(9.7)	17(18.3)	3(3.2)	2(2.2)	9(9.7)	1(1.1)	4(4.3)	93(100)
	21~25	55(55.0)	5(5.0)	18(18.0)	2(2.0)	5(5.0)	4(4.0)	1(1.0)	10(10.0)	100(100)
	26~30	53(47.7)	7(6.3)	19(17.1)	11(9.9)	3(2.7)	8(7.2)	2(1.8)	8(7.2)	111(100)
	31이상	32(39.0)	8(9.8)	17(20.7)	14(17.1)	2(2.4)	5(6.1)	0	4(4.9)	82(100)
	기 타	9(30.0)	1(3.3)	8(26.7)	4(13.3)	0	2(6.7)	0	6(20.0)	30(100)
계		256(48.1)	39(7.3)	97(18.2)	45(8.5)	16(3.0)	34(6.4)	4(0.8)	41(7.7)	532(100)
한달 술값 지출 비용 (만원)	5 미만	119(52.0)	13(5.7)	34(14.8)	20(8.7)	11(4.8)	18(7.9)	0	14(6.1)	229(100)
	5~10	76(49.0)	14(9.0)	27(17.4)	12(7.7)	3(1.9)	9(5.8)	1(0.6)	13(8.4)	155(100)
	11~15	38(45.8)	5(6.0)	24(28.9)	4(4.8)	1(1.2)	6(7.2)	0	5(6.0)	83(100)
	16~20	16(44.4)	6(16.7)	6(16.7)	4(11.1)	1(2.8)	0	2(5.6)	1(2.8)	36(100)
	21~25	2(20.0)	0	4(40.0)	1(10.0)	0	0	0	3(30.0)	10(100)
	26이상	2(11.1)	1(5.6)	3(16.7)	5(27.8)	0	1(5.6)	1(5.6)	5(27.8)	18(100)
	계	253(47.6)	39(7.3)	98(18.5)	46(8.7)	16(3.0)	34(6.4)	4(0.8)	41(7.7)	531(100)

N.S. : Not significant

3. 음주시 선호하는 안주류

음주시 선호하는 안주 종류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안주류로는

찌개, 탕류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류(18.2%)였다. 이는 〈표 2〉에서 선호하는 술 종류가 소주인 것과 관련하여 소주의 안주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⁷⁾등의 연구에서는 음주시 안주로는 찌개가 30.3%, 과일안주가 24.7%, 마른안주가 21%인 것

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육류를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이 찌개·탕류, 과일안주, 마른안주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평균 용돈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대체로 용돈이 많은 학생이 육류안주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월 용돈이 20만 원 이하인 학생의 경우 찌개·탕류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달 술값지출 비용별($p<0.05$)로는 술값 지출 비용이 많을수록 육류안주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음주시 술집의 선택 기준

대학생들이 술집을 선택할 때 선택기준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음주시 술집을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28.1%)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골집(20.0%), 닥치는 대로(11.6%), 분위기(10.7%) 순이었다. 신⁷⁾ 등의 연구에서는 술집선택기준은 분위기가 38.8%, 단골집이 22.0%, 가격이 21.6%, 맛이 12.6%로 나타나 본 조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월 평균 용돈별($p<0.01$), 한 달 술값 지출 비용별($p<0.05$)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분위기와 서비스에 따라 술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용돈이 20만원 이하인 학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술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이 적을수록 단골집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달 술값 지출 비용별로 보면 비용이 많을수록 가격보다는 단골집이나 분위기에 따라 술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술이 취한 후 술버릇에 관한 사항

대학생들이 술이 취한 후 술버릇에 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술에 취했을 때 행할 수 있는 술버릇은 그냥 잔다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말을 많이 한다가 20.6%, 말이 없다가 12.5%, 모른다가 11.3%의 순이었다. 술을 마시면 잠을 자는 현상은 소주 1병(6~7잔)의 혈중 알콜 농도가 0.11~0.15로서 완취기에 해당되며 중추 및 말초신경이 흥분되고

〈표 4〉 음주시 술집 선택 기준

N(%)

항 목		가격	단골집	친구 따라	분위기	안주맛	서비스	교통 (거리)	닥치는 대로	기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	106(29.0)	72(19.7)	32(8.7)	33(9.0)	12(3.3)	17(4.6)	5(1.4)	53(14.5)	36(9.8)	366(100)	$\chi^2=14.020$ $df=8$ N.S.
	여	45(26.8)	35(20.8)	19(11.3)	24(14.3)	7(4.2)	12(7.1)	2(1.2)	9(5.4)	15(8.9)	168(100)	
월 평균 용돈 (만원)	계	151(28.3)	107(20.0)	51(9.6)	57(10.7)	19(3.6)	29(5.4)	7(1.3)	62(11.6)	51(9.6)	534(100)	$\chi^2=81.675$ $df=48$ $p<0.01$
	5~10	8(19.0)	14(33.3)	5(11.9)	2(4.8)	0	3(7.1)	3(7.1)	2(4.8)	5(11.9)	42(100)	
	11~15	21(29.2)	16(22.2)	9(12.5)	6(8.3)	2(2.8)	3(4.2)	1(1.4)	7(9.7)	7(9.7)	72(100)	
	16~20	36(39.1)	18(19.6)	5(5.4)	12(13.0)	5(5.4)	3(3.3)	0	7(7.6)	6(6.5)	92(100)	
	21~25	33(33.0)	16(16.0)	7(7.0)	12(12.0)	5(5.0)	4(4.0)	1(1.0)	10(10.0)	12(12.0)	100(100)	
	26~30	32(28.8)	21(18.9)	10(9.0)	12(10.8)	3(2.7)	10(9.0)	1(0.9)	9(8.1)	13(11.7)	111(100)	
	31이상	16(19.5)	15(18.3)	5(6.1)	11(13.4)	3(3.7)	5(6.1)	1(1.2)	21(25.6)	5(6.1)	82(100)	
(반원)	기타	3(10.0)	6(20.0)	9(30.0)	2(6.7)	1(3.3)	1(3.3)	0	6(20.0)	2(6.7)	30(100)	$\chi^2=62.254$ $df=40$ $p<0.05$
	계	149(28.2)	106(20.0)	50(9.5)	57(10.8)	19(3.6)	29(5.5)	7(1.3)	62(11.7)	50(9.5)	529(100)	
한달 술값 지출 비용 (반원)	-5	79(34.8)	35(15.4)	22(9.7)	33(14.5)	8(3.5)	13(5.7)	2(0.9)	12(5.3)	23(10.1)	227(100)	$\chi^2=62.254$ $df=40$ $p<0.05$
	5~10	38(24.5)	34(21.9)	16(10.3)	14(9.0)	5(3.2)	9(5.8)	1(0.6)	24(15.5)	14(9.0)	155(100)	
	11~15	26(31.3)	17(20.5)	6(7.2)	7(8.40)	4(4.8)	3(3.6)	2(2.4)	10(12.0)	8(9.6)	83(100)	
	16~20	6(17.1)	13(37.1)	3(8.6)	2(5.7)	0	1(2.9)	2(5.7)	6(17.1)	2(5.7)	35(100)	
	21~25	1(10.0)	2(20.0)	1(10.0)	0	0	1(10.0)	0	4(40.0)	1(10.0)	10(100)	
	30+	1(5.6)	4(22.2)	1(5.6)	1(5.6)	2(11.1)	2(11.1)	0	5(27.8)	2(11.1)	18(100)	
	계	151(28.6)	105(19.9)	49(9.3)	57(10.8)	19(3.6)	19(3.6)	7(1.3)	61(11.6)	50(9.5)	528(100)	

N.S. : Not significant

〈표 5〉 술이 취한 후의 술버릇에 관한 사항

N(%)

항 목		그냥 잔다	옆사람을 괴롭힌다	말을 많이 한다.	운다	말이 없다	모른다	기타의 주사가 있다	전 체	비 고
성별	남 여	139(38.2) 75(45.2)	20(5.5) 8(4.8)	78(21.4) 31(18.7)	6(1.6) 6(3.6)	51(14.0) 15(9.0)	39(10.7) 21(12.7)	31(8.5) 10(6.0)	364(100) 166(100)	$\chi^2=3.452$ $df=5$ N.S.
	계	214(40.4)	28(5.3)	109(20.6)	12(2.3)	66(12.5)	60(11.3)	41(7.7)	530(100)	
	- 20 20~24 25~29 30+	105(36.6) 88(44.4) 19(46.3) 2(50.0)	15(5.2) 11(5.6) 1(2.4) 1(25.0)	64(22.3) 39(19.7) 5(12.2) 1(25.0)	5(1.7) 7(3.5) 0 0	37(12.9) 22(11.1) 7(17.1) 0	35(12.2) 19(9.6) 6(14.6) 0	26(9.1) 12(6.1) 3 0	287(100) 198(100) 41(100) 4(100)	
연령 (만세)	계	214(40.4)	28(5.3)	109(20.6)	12(2.3)	66(12.5)	60(11.3)	41(7.7)	530(100)	$\chi^2=15.375$ $df=18$ N.S.

N.S. : Not significant

〈표 6〉 학교나 학과 행사 후 음주 행동에 대한 견해

N(%)

항 목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잘못된 것이다	모르겠다	필요하지만 심한편이다	기타	전 체	비 고
성별	남 여	73(18.5) 29(14.7)	206(52.2) 100(50.8)	27(6.87) 12(6.1)	49(12.4) 31(15.7)	37(9.4) 24(12.2)	3(0.8) 1(0.5)	395(100) 197(100)	$\chi^2=7.405$ $df=6$ N.S.
	계	102(17.2)	306(51.7)	39(6.6)	80(13.5)	61(10.3)	4(0.7)	592(100)	
	- 20 20~24 25~29 30+	105(36.6) 88(44.4) 19(46.3) 2(50.0)	15(5.2) 11(5.6) 1(2.4) 1(25.0)	64(22.3) 39(19.7) 5(12.2) 1(25.0)	5(1.7) 7(3.5) 0 0	37(12.9) 22(11.1) 7(17.1) 0	26(9.1) 12(6.1) 3 0	287(100) 198(100) 41(100) 4(100)	
연령 (만세)	5~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기 타	6(12.0) 11(13.4) 17(16.3) 17(15.6) 25(20.7) 14(15.7) 11(34.4)	24(48.0) 39(47.6) 49(47.1) 64(58.7) 64(52.9) 53(59.6) 10(16.5)	0 5(6.1) 3(2.9) 9(8.3) 8(6.6) 9(10.1) 4(12.5)	9(18.0) 17(20.7) 22(21.2) 11(10.1) 12(9.9) 5(5.6) 4(12.5)	10(20.0) 9(11.0) 12(11.5) 8(7.3) 12(9.9) 7(7.9) 3(9.4)	1(2.0) 1(1.2) 1(1.0) 0 0 1(1.1) 0	50(100) 82(100) 104(100) 109(100) 121(100) 89(100) 32(100)	$\chi^2=42.619$ $df=30$ p<0.05
	계	101(17.2)	303(51.6)	38(6.5)	80(13.6)	61(10.4)	4(0.7)	587(100)	
	5 미만 5~10 11~15 16~20 21~25 26이상	25(10.9) 32(20.6) 23(27.7) 10(27.8) 3(30.0) 8(44.4)	128(55.9) 84(54.2) 44(53.0) 20(55.6) 5(50.0) 4(22.2)	9(3.9) 12(7.7) 3(3.6) 3(8.3) 0 0	37(16.2) 15(9.7) 6(7.2) 2(5.6) 1(10.0) 1(5.6)	27(11.8) 12(7.7) 7(8.4) 1(2.8) 1(10.0) 5(27.8)	3(1.3) 0 0 0 0 0	229(100) 155(100) 83(100) 36(100) 10(100) 18(100)	
	계	101(19.0)	285(53.7)	27(5.1)	62(11.7)	53(10.0)	3(0.6)	531(100)	
	기타	11(21.4)	33(61.5)	3(5.6)	6(11.5)	3(5.6)	0	53(100)	
	기타	11(21.4)	33(61.5)	3(5.6)	6(11.5)	3(5.6)	0	53(100)	
	기타	11(21.4)	33(61.5)	3(5.6)	6(11.5)	3(5.6)	0	53(100)	

N.S. : Not significant

신경전달물질인 dopamin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져 이 완상태가 되어 잠이 오는 것⁹⁾이다. 성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그냥 자거나 우는 버릇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이 그냥 자는 버릇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20대의 학생이 다양한 술버릇을 가졌고 30대의 학생들은 그냥 자거나 옆 사람을 괴롭히거나 말

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6. 학교나 학과 행사 후 음주등의 뒤풀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대학생들이 학교나 학과 행사 후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에 관한 자신의 견해는 〈표 6〉과 같다.

행사 후 뒤풀이 등의 행사로 음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70%정도로 대부분의 학생이 행사 후 음주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6%에 불과했다. 그러나 10.3%의 학생이 필요하지만 심한 편이라고 응답해 일부의 학생이 대학생 음주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후 음주 행동은 성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용돈별($p<0.05$), 한달 술값 지출 비용별($p<0.01$)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용돈이 많을수록 음주등 뒤풀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용돈이 20만원이상인 학생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47%가 술값으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고, 49%가 술을 마시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조사한 알코올 상식백과⁹⁾와 일치하였다. 한달 술값 지출 비용별로는 지출 비용이 많은 학생일수록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심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IV. 요약 및 결론

양산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술종류는 소주가 전체의 71.6%로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맥주(12.5%), 생맥주(9.5%)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 시 선호하는 술종류는 성별($p<0.001$), 월 평균 용돈별($p<0.01$)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소주가 76.6%로 월등히 높았으며 여학생은 60.7%로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났고 월 평균 용돈별로는 용돈이 많을수록 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안주류로는 짜개, 팡류(48.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류(18.2%)였다. 성별($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여학생인 경우 육류보다 과일안주나 마른안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튀김, 전류의 경우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3. 대학생들이 음주 시 선택하는 술집의 선택기준은 가격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단골집(20.0%), 닥치는 대로(11.6%), 분위기(10.7%) 순이었다.
4. 대학생들이 술 취한 후의 독특한 술버릇은 그냥 잔

다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말을 많이 한다가 20.6%, 말이 없다가 12.5%, 모른다가 11.3%의 순이었다.

5. 대학에서 행사 후 음주를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70%이며 잘못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6.6%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이 행사 후 음주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10.3%의 학생이 필요하지만 심한 편이라고 응답해 일부의 학생이 대학생 음주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1) 대한주류공업협회. 알코올상식백과, p.271, 1998.
- 2) 서문희, 술과 문화, 보건소식(여름호), p.10, 1998.
- 3) 남정자, 최정수, 김태정. 계훈방, 19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5~103, 1995.
- 4) 정충영, 최이규. spss win(3판), 무역경영사, 서울, p.518, 1998.
- 5) 강병서. 통계분석을 위한 spss-pc+, 무역경영사, 서울, p.300, 1997.
- 6) 신애숙, 우문호. 양산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관한 조사연구(I),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2), 1999,(계재예정)
- 7) 신애숙, 김경자. 부산지역대학생들의 대학가 음식문화 실태조사연구,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5:351, 1995.
- 8) 대한주류공업협회a. 알코올상식백과, p.38, 1998.
- 9) 대한주류공업협회b. 알코올상식백과, p.257, 1998
- 10) 김광기.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22:162, 1996.
- 11) Straus, R. Types of alcohol dependence, The Biology of Alcoholism, 6, New York, Plenum, 1993.
- 12) SBS 보도국 기자들. 한국인의 술에 관한 48가지 리포트, 서울 : 서지원, 1997.
- 13) Hilton M.E., Clark W.B. Changes in American drinking pattern and problem, 1967~1984, p.157~174 in Society, Culture and Drinking Patterns Reexamined, edited by DJ Pittman and HR White, NJ,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1991.
- 14) Clark W.B., Hilton M.E. Alcohol in America, N.Y., SUNY, 1991.
- 15) 한국소비자 보호원. 한국의 소비생산지표, p.163, 1997.
- 16) Lehto, J. The Economic of Alcohol Policy, WHO

- Regional Publications, European Series No. 61,
Copenhagen, Denmark, 1995.
- 17) Levine H.G. What is alcohol related problem? Journal
of Drug Issues, Winter p.45~60, 1984.
- 18) World Health Organization. Lifestyles and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22, p.117~124, 1984.
- 19) Dever, G.E. Epidemiology in Health Service
Management, Gaithersburg, MD. Aspen, 1984.
- 20) 한명주, 조현아. 서울지역 대학생의 식습관과 스트
레스정도에 관한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332, 1998.